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6월 5일 (제84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 공통점과 차이점

목회를 하기 전, 나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하는 교육 사업을 했다. 아이들이 처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들어오면 학생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같은 교실,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선생님 밑에서 같은 책으로 공부한다. 외적으로 그들은 다 같다. 그러나 점차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성격이 유순한 아이와 과격한 아이, 성실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다. 교회에 오면 다들 크리스천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신자(信者)와 성도(聖徒)가 있고, 턱걸이 신앙과 군사적 신앙을 가진 자들, 자기 신앙만 지키는 자가 있는 반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가 있다. 공통점 안에서 차이점이 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좀 들들 부는 편이다. 대형집회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라고 강요하고, 봉사도 강조하고 있다. 왜 일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차이점을 두기 위함이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상을 받는 자가 있으며, 열 고을의 왕 자리를 받는 자가 있기에 그런 것이다.

공통점 속에서 차이가 나게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고, 성실히 출석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에서도 빠지지 않고 주일성수를 해야 하고, 놀지 못하고 봉사를 해야 하며,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남들보다 뛰어난 인물, 남들보다 앞선 자, 남들보다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 남들과 똑같다면 특별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군계일학(群鷄一鶴)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라. 노력이란 무기를 이길 자는 없다.

## 아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Knowing is the start of freedom*

“나는 문제가 있는 곳에 내가 직접 뛰어들다. 내가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내 믿음이다.”

총회장 목사님이 JC 아카데미 강단에 직접 서셨다. 목사님이 단에 등단하신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일신되는 느낌이였다. 목사님은 단에 오르자마자 “Knowing is success!”, “Knowing is power!”를 외치고, 한 학생을 단에 올려 계속 외치게 하셨다.

“여러분, 아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자유가 있고, 아는 것만큼 즐길 수 있으며, 아는 것만큼 진보할 수 있습니다. 왜 매일 쫓기는 인생이 되는지 압니까? 그건 여유가 없

심시오. 연장이 없으면 일 못한다고 합니다. 연장이 뭘니까? 바로 각 분야의 해박한 지식입니다.

나는 지인으로부터 전(前) 체신부 장관인 오명의 ‘30년 후의 코리아를 꿈꿔라’라는 책을 선물로 받고, 이 책을 우리 교단의 교육자와 공유하고 싶어 그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오래 전에 출판된 것이라 온라인, 오프라인, 심지어 출판사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현대 꼭 찾아오라는 특명을 받은 신혁주 전도사는 헌 책방을 다 뒤져 오늘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회전시킨 것입니다. 이렇듯 ‘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의 뇌

다. 검은 풍선이든 빨강 풍선이든 수소만 넣으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환경이나 여건이 어떻든 간에 꿈을 가지고 지식을 함양하면 하늘을 나는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3T’에 대해 압니까? 타이틀(Title), 타깃(Target), 타이밍(Timing)이 맞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목표를 향해 진군하십시오. 그 방법은 지식함양입니다.”

목사님은 뜻 있는 장로들에게 교육부에 적극 후원을 당부하셨다. 예배 후 중고등부 이현승 전도사는 “목사님께서 담당 해주시니 이미 부흥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감사하며 열심히 뛰겠습니다.”라고 했고, 대학부를 담당할 신혁주 전도사는



JC 아카데미 청년대학세미나(2016년 5월 27일(금) 저녁 8시반, 무반포 엘루체 컨벤션)

기 때문인데, 여유란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외국인을 만나도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자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는 것, 곧 지식은 책을 섭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현구 장로의 손녀가 중국에서 공부하다 미국 뉴욕의 학교로 발탁되어 갔는데, 이 장로 하는 말이 “다른 건 안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지식은 꼭 대학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해서 젊은이들과 소통할 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한계가 있다고, 직간접적인 지식은 바로 책과 경험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굴지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

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가 뭘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노력한 만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앞뒤 좌우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보고 배우고 얻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공하기를 원하면 오늘, 지금 지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고등부 전도사에게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영어성경 한 구절과 영어로 된 명언을 문자로 날리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또한 지식을 함양하는 것과 더불어 꿈과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설정이 확실치 않으면 인생이 표류하기 때문입니

“목사님의 가르침이 제 목회와 삶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열 번씩 웃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며, 청년부 선동호 전도사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잠언의 말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장용준 전도사 역시 “맛없는 수프가 뜨겁기만 하면 안 됩니다. 총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교육부가 최고의 요리로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청출어람(靑出於藍), 스승은 제자의 앞길을 닦아주는 분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낫기를 원하신다. 목사님은 ‘할 수 있다’ 찬송으로 마무리를 지으며 격려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은 힘을 얻고 각오를 다졌다. 신묘수

# 주일은 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구 88체육관)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7:6~20)



#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렵다

우리 교회 모 박사가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쉬운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 설교는 너무 쉽습니다.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왜 상대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말을 하고, 말을 주저리주저리 많이 하는 줄 압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기미나 잡티가 많으면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굴빛이 고운 사람은 요즘말로 생얼로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목회 초창기에 서론, 본론, 결론에 대지, 소지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보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교를 하였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농사일로, 어부들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로,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혼인잔치 이야기로 각 사람에 맞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남녀노소, 유·무식을 떠나 듣고 깨닫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느 아버지가 자식하고 얘기하면서 문자 써가며 이야기 합니까? 자식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해야 옳은 거지요.

###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7:12)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뭘 더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상대에게 욕 하면 욕이 넘치도록 옵니다. 그러나 칭찬해 보세요. 칭찬이 흔들어 놀려 넘치도록 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 남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면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5:5)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차갑고 쌀쌀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음식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맛이 있는데, 사람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자가 잘 되는 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라, 동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려고 공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힌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됩니다. 모르는 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다독

하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척, 잘난 척, 배운 척 하지 않고 순수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믿는 믿음이 옳은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엨 6:2~3).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가? 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단다(마 5:8).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내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요

14:14). 악한 귀신을 쫓기 원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라(막16:17). 크고 비밀된 일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렘 33:3). 지혜를 얻기 원하는가? 그러면 정직해라(잠2:7). 그리고 복 있는 자와 함께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자와 있으면 재앙이 따르니 악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시 1:1), 친구를 잘 사귀어라(잠27:17)…”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정말 너무 쉬운 말씀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11:28~30). 의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나의 진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종종 대표 기도를 하라 하면 미사여구나 쓰고, 청산유수로 줄줄 읊어대는 것을 봅니다. 그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사람 들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어렵게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어렵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무식하게,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요한계시록을 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빨리 오시면 들림 받을 것이고, 더디 오시면 무병장수미약하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광주의 어느 장로처럼 ‘주가사(主家事)’, ‘주님 먼저, 그 다음이 가정, 마지막에 사업’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

든 일에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의

나 라 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막12:31)하신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찌는 도끼에게도 향을 묻힌다고 하던데, 우리도 하나님의 향기를 어디에든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뤄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전제조건을 세우십니다. 그 전제조건이 이뤄질 때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입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말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2:26).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줄은 다 알면서도 운동을 안 하지요.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 줄 알면서도 허겁지겁 먹고요. 빨리 달리면 사고 나는 줄 알면서도 달리지요. 우리가 못하는 것은 정말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 그런 것임을 알

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껍딱하고, 실패하고, 난항에 부딪치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20년 동안 방황하다 돌아온 성도가 ‘오늘 이 말씀에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멀리서 찾지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과랑새가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우리 가슴에 있듯, 진리 역시 그렇습니다.

###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이라도 행하라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길도 의외로 쉽습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 해주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당신이 최고’라고, 우리 교회 전미숙 권사처럼 ‘당신 없으면 못산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식에게는 ‘내 자식이 제일’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너무 쉽지요. 그런데 그 쉬운 걸 안 해서 사내 못사내 하며 어렵게 사는 겁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길도 쉽습니다. 성경말씀으로 해답을 드릴 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눅16:10). 이러면 되는 겁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잠11:1). 정말 쉽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서 제일 가슴이 답답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신앙 생활을 아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성경말씀을 히브리어로 헬리아로 풀어가며 신학에는 박식한데, 전혀 행함이 없는 사람을 볼 때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성경은 분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읽고 행동으로 옮겨 영·혼·육에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여 복 좀 받아봅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가계부채로부터의 탈출

미국의 뉴욕대 앤드로 로스 교수는 현대사회를 '크레디토크라시'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빛이라는 의미의 '크레딧(Credit)'와 체제라는 뜻의 '크라시(-cracy)'를 붙여서 만든 이 신조어는 '부채의 지배를 받는 사회'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상담을 하다보면 과도한 빚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2016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이 1,223조 7,000억 원이라고 하니 국민 1인당 평균 2,408만원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카드사용과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가장 한사람이 벌어서 가족들을 다 부양하였는데, 이제는 힘들게 맞벌이를 해도 빚 갚는 일에 돈이 다 들어가 버리고 남는 게 없습니다. 빚 때문에 일 가족이 목숨을 끊고, 카드 값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빚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불법 카드깡을 하거나 사채업자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채라면 빚의 늪에서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말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부채를 탕감 받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제도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빚의 독촉이나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

며, 이자는 전액 감면 받고, 일정기간 동안 자신의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책정된 금액을 성실히 갚아 나가면 부채의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은 개인과산 후에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이자를 포함한 채무 전액을 다 탕감 받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었거나, 부채의 내역이 도박이나 사치를 위하여 과도한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와 최근 1년 사이에 부채총액이 50% 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라에서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놓은 법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을 찾게 되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비습관을 고쳐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잔고한도 내에서 지출을 하고, 무엇보다도 번 것보다 적게 쓰면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빚 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남기어서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원도 한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믿는 성도의 삶의 자세이며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JCC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지난 5월 28일 토요일 저녁, JCC 오케스트라의 제2회 정기 연주회가 인천교회 본당 로비에서 있었다. 신일철 지휘자를 비롯한 40여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작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기량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청중이 익히 알고 있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선정하여 관객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주회 장소로 본당 로비를 제한한 분은 총회장 목사님이다. 이는 고정관념을 깬 발상이었는데, 대성전에서 열렸던 1회 연주회 때보다 더욱 소리가 웅장하게 들렸고, 오케스트라와 관객의 거리가 가까워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그래서 그랬을까? 연주 후 관객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고, 여러 차례의 앙코르 연주가 있었다. 이를 두고 인천교회 배선미 집사는 "오늘 성전 로비에서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것이 될까 생각했는데, 역시 목사님은 한 수 앞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년에는 야외에서 연주회를 해도

좋을 듯합니다."라고 말했다. 연주회에 앞서 만난 단장 겸 지휘자인 신일철 집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오케스트라, 온 교인과 함께 즐기는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뿐 아니라 서울 교회에서도 아마추어 단원들을 모아 연주회를 갖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사실 JCC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거의 아마추어 연주자들이다. 이들 모두는 신일철 지휘자를 통해 악기를 처음 접한 자들로 그야말로 음악의 ABC부터 배워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누구든, 무엇이든 꾸준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교훈이 진리임이 밝혀졌다. '못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는 질문을 던지는 뜻 깊고 아름다운 음악회였다. JCC 오케스트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내년 연주회를 기약해본다.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제 2회 JCC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특별기고 ::

# ‘뉴욕 뒷골목 수프 가게’ - 존 고든 著



이현구 장로 부부와 손녀 이낙희

이 책은 친구의 추천으로 우연히 읽게 된 책이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닌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수프를 만드는 회사의 CEO '낸시'이다. 그녀는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다가 그녀의 비서 '브랜다'와 함께 유명하다는 소문이 들리는 수프 가게를 찾아 가게 되고, 그 수프를 만드는 비결을 마침내 찾게 되어 점점 무너져가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살리게 된

다. 그들이 알게 된 비법은 어떤 재료나 방법이 아닌 바로 '수프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음식 맛에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난다는 '냄비 짓기 현상'에 그 비법이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회사의 경영 방법을 하나씩 알아간다. 내가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회사 경영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읽다 보니 이 모든 원리들은 내가 생활하며 함께하는 공동체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로 내가 이 안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열정이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의지와 열정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그 한 사람의 열정이 팀 전체에,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 열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공동체의 비전에 대해 좀 더 같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먼저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내가 먼저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

다. 책에서도 "수프에 들어갈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프를 짓는 사람이다. 최선을 다해 사랑을 담아 그 수프를 저어라."고 말하고 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열정과 사랑을 담을 때 그것이 음식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며 회피하기 보다는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공동체에 마음을 쓰는 것, 먼저 나아가 해결하려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의 열정을 지켜보며 그 에너지가 전파되어 열정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관계이다. 나만 열정적이라고 해서 아무 노력 없이 타인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먼저 그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신뢰감은 일종의 가까움의 표시이기도 한 것 같다. 그렇게 더 함께 소통하며 신뢰감을 쌓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그 힘이 성공을 맞보는 데 있어 중요한

것 같다. 이 책에서 나온 관계 중 하나는 참여하는 관계이다. 공동체 활동 속에서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 그 한 명이 모든 것을 해 나간다면 다른 사람들은 열정도 빼앗길 뿐더러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서로의 관계도 가까워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어느 곳에서나 누구와 함께하던 그 관계 속에서 더 솔직하게 신뢰를 쌓아가고, 함께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참여하는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 이 책을 통하여 공동체 속에서의 나의 역할과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갈 수 있어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기억하며 이 책을 통해 배운 것을 정리하고 싶다.

"수프에 들어갈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프를 짓는 사람이다. 최선을 다해 사랑을 담아 그 수프를 저어라."

이현구 장로 손녀 중3 이낙희

:: 간중 ::

::참된 깨달음::

# 강을 건넜으니 냇목을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 느림보가 이긴 이유!



나는 60평 생 절만 섬기던 부모님과 3남매 중 큰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책임감이 무거웠다. 어느 해 오빠는 결혼 3개월 만에 죽었고, 불의의 사고로 여동생까지 죽는 바람에 동생의 아이 셋을 데려와 키워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농사지던 중 제일 잘 되었다던 그해에 농작물이 태풍에 다 쓰러졌고, 가족도 죽어 말 그대로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났다. 또한 결혼 10년 동안 나에게 아이는 없애 그로인해 불면증과 심적 고통이 컸다.

결혼해서 남편직장을 따라 서울로 온 나는 아이가 없는 터라 보험회사에 입사해 설계사로 활동했는데, 가는 곳마다 고객이 나에게 예수를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량진 고객의 교회에 부흥회가 열린다며 한번만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가 교회에 앉아 말씀을 듣는데, 마치 내 사정을 잘 알고 하시는 말씀 같았다. 하수구 뚫린 것처럼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뚫렸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다. 예수를 영접한 그날 이후, 뭘지 모르는 기쁨과 힘이 생겼고, 남이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환해지며 불면증도 사라졌다. 집근처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내 생활은 즐거웠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 성경과 신앙서적을 읽던 나에게 어느 목사님이 쓴 '귀신

잡는 이초석'이라고 이단으로 분류된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귀신 잡는 해병대는 들어봤어도 어떤 사람이기에 귀신을 잡나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다 90년에 남편 직장을 따라 다시 광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광주에 도착하는 날, 운암동 로터리에 있는 '이초석 목사 춘계산상집회'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깜짝 놀랐다. 책에서 봤던 그림을 보게 되다니. 이삿짐을 풀고 물어서 장성기도원으로 갔다. 90년 그날 밤, 기도원에서 생전보지 못했던 장면을 목격했다. 목사님이 귀신을 쫓는데 성경이 그대로 이뤄지고 있었다. 그날 나는 2천 년 전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다짐했다. 이초석 목사님 교회로 옮기겠다고. 그 후 광주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인도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91년에는 예쁜 딸도 낳았다. 그러던 97년, 엄마가 위암에 걸려 전남대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위암 3기로 인파선 까지 번져 3~6개월 밖에 못산다고 했다. 문제는 병원수술예약은 12월 19일이고, 목사님 집회는 1월 19일이라는 것이다. 믿지 않던 모든 가족이 반대했지만, 나는 수술을 하지 않고 엄마와 집회에 참석하여 목사님을 통해 암을 고쳤고, 중풍으로 쓰러져 걷지 못했던 엄마는 광주집회를 통해 다시 걷게 되었으며, 지금은 혈관성치매지만 좋아져서 치매 같지 않으시다. 아버지는 중풍이었지만 중풍이 아닌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다. 암과 중풍을 통해 부모님을 구원하신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저에게 어떤 계기로 고단을 떠나 방황하던 때가 있었고, 그 때는 정말 힘들었다. 나는 부모님의 눈을 담보로 대출받아 1,800평에 소나무와 백일홍

을 심었다. 나무에 전문지식이 없던 제가 외삼촌 말만 듣고 시작한 일이다. 올 봄에 기도원에 드리려던 소나무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인천교회 건축 때 가족이름으로 소나무 20그루와 성부, 성자, 성령이란 나무와 함께 드리기로 했는데, 목사님께서 '네가 빛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겠냐며 안 가져가셨다. 그래서 서울교회 지으면 드린다고 15년 동안 기다리면서 어느 정원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심겨지기를 기도했고 '헬기라도 옮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목사님은 영혼을 살리는 대가로 이것을 지불하셨다. 목사님 뜻에 나는 전적으로 따랐다.

2005년, 물질을 다 잃고 죽고 싶을 때 두 손 들고 신학교에 갔다. 엄마는 80먹은 늙은 부모에게 어린것들을 두고 신학은 무슨 신학이냐며 반대가 심했다. 그때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이 맞다면 내가 알 수 있도록 예시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꿈에 그물질하는 꿈과 목사님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꿈, 또 빨간 양말을 주신 꿈을 주셔서 열정적으로 발로 뛰라는 뜻으로 받고 확신하여 신학교 4년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그리고 정음사랑예수중심교회를 세웠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서 입당 예배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다.

목사님 말씀대로 과거는 부도난 수표다. 과거의 나는 잊고 이제부터 다시 달려가련다. 목사님의 사랑과 은혜, 교회 부흥으로 답하겠다 다짐한다.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 두 번 할 일은 하지 말라



목사님은 교육국 담당목사로서 청년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교육하셨다.

지난 화요일 오후, 목사님께서 교회 사무실에서 상담을 마치고 잠깐 화장실에 들르셨다가 아르바이트 중인 대학부 학생들을 만나셨다.

"내가 교육국 담당목사가 되었으니 대학청년부 학생들을 사무실로 오라해라."

그리고는 목사님은 회사 대표로 있는 김상구 장로님과 온유 자매를 직접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셨다. 아무리 목사라 해도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목사님은 사무실로 들어온 대학청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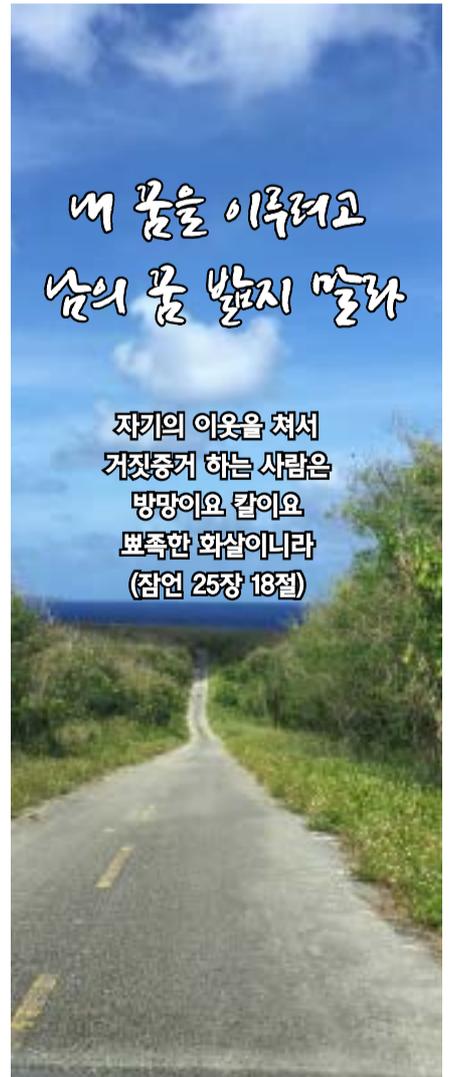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비타민 음료를 한 병씩 대접하시고는 비록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것을 주문하셨다.

"아웃백이란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녀가 있었다. 그런데 점장이 가만히 그 소녀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느리게 하는 거다. 이유를 물으니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일든 두 번 할 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설거지를 하면 세제로 닦고 물에 헹구어 바로 선반에 올려놓는데, 그 소녀는 물기에 젖은 그릇을 꼭 마른 수건으로 닦은 후 올려놓는 것이었다. 일의 속도는 늦을 수밖에 없었지만, 완벽한 마무리를 해놓으니 더 손떨 것이 없었다. 점장은 지사회의에 나가 이 사례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발표를 들던 회장이 그 이야기에 감동

을 받았다. 회장은 확인 차 그 소녀를 따로 불러 다시 물어보았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일을 대충 해놓으면 누군가 그 일을 다시 보충해야 하니 이중 일이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은 그 소녀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다. 비정규직에서 급기야 정규관리직원으로 승진채용된 것이었다. 아르바이트 일만이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지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 것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늘 말하지만 종업원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지만, 주인의 눈에는 머리카락이 동아줄로 보이는 법이다. 머슴사상을 버리고 매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도 말씀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내 꿈을 이루려고  
남의 꿈 밟지 말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중계 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잠언 25장 18절)